

일주문

동국대 서울캠퍼스 업무보고회 일면 동국대 이사장 스님은 7월 22일 동국대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동국대 서울캠퍼스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제 14회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 성원 강화 선원사 주지 스님은 '제 14회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와 연꽃 축제'를 8월 1일~3일 선원사 연꽃축제장에서 연다.

중국 북방불교 법왕과 환담 강창일 국회 정교회 회장은 7월 22일 국회 본청에서 바이아마에서 중국 북방 불교 법왕을 포함한 방한단과 환담을 나눴다.

한기는 작가 개인전 한기는 작가는 8월 5일까지 부산 아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자연속에서, 흥족 등의 조각 작품을 선보인다.

〈인사〉 조계종 교역직 인사

해량 스님, 보운 스님, 석운 스님, 덕운 스님, 범하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7월 23일 감사국장장에 해량 스님, 호법국장장에 보운 스님, 조사국장장에 석운 스님을 상임감찰에는 덕운 스님, 조사과장에는 범하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감사국장 해량스님은 정념스님을 은사로 1999년 사미계를 수계했으며 중앙승가대를 졸업했다.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중대 사자감 감원을 맡고 있다. 호법국장 보운스님은 해경스님을 은사로 1989년 사미계를 수계하고 법어사승가대학을 졸업했다. 금정총림 선원, 법주사 총지선원, 덕숭총림선원, 모관암사 감상선원, 봉암사 태고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총무원 감사국장장을 역임하고 현재 백룡암 주지를 맡고 있다. 조사국장 석운스님은 수진스님을 은사로 1996년 사미계를 수계하고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팔공총림선원, 쌍계총림선원, 법주사 총지선원, 해인총림선원, 영축총림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상임감찰 덕운스님은 무문스님을 은사로 1994년 사미계를 수계하고 직지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마곡사 태화선원, 공림사 감인선원, 용주사 중앙선원, 직지사 천불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석남사 주지, 총무원 사회국장장을 역임했다. 조사과장 범하스님은 진옥스님을 은사로 1999년 사미계를 수계했으며 송광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총무원 상임감찰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캄보디아에 韓불교 자비 전할 것”

송묵 스님, 8월 2~9일 씨엠립서 해외봉사 펼쳐



우물사업서 봉사 원력 생성 현지 사정 안타까움 느껴 교육·의료 등 다방면 확대 “한국청소년 참된 가치 깨닫길”

“현지 보살님에게 씨엠립 지역 식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관심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현황 파악을 하다 보니 의료·교육 등 열악한 환경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봉사반경을 넓히게 됐습니다.”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사진)은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와 함께 8월 2~9일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떠난다. 파라미타 소속 중·고생 및 포교사단, 동국대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7박 8일간 우물지원, 교실지원, 의료·약품지원 등 다방면의 봉사활동을 펼친다. 송묵 스님의 봉사 원력은 우물지원사업부터 시작했다. 우물 지원을 위해 현지 사정을 파악하던 중 열악한 교육·의료 환경을 알게 돼 봉사 영역을 확대했다. 동국대 의료진 6명이 합류한 의료 봉사단은 클링하이스쿨 학생들 외에도 지역 주민들에게도 의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묵 스님은 “동국대 의료진에 의료 봉사 지원을 요청하자마자 많은 의사들이 자발적 참여

의사를 내비쳤다”며 “이번에는 지역사회 의료 봉사를 진행해 많은 일손이 필요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줘 기쁨이 배가 됐다”고 웃어보였다. 평소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열성적인 송묵 스님은 씨엠립 지역 초등학교 ‘클링하이

스쿨’ 학생들을 위해 약 1천만 원 예산의 25평 교실 건립한다. 이번 파견 기간 동안 기공식에 착수한 한 달여간 공사가 진행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3백여 명의 교복 및 학용품, 생필품도 지원한다. 송묵 스님은 “교실이 모자라 밖에서 공부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면서 “교실 건립뿐 아니라 전반적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복, 학용품 등도 함께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에 스님은 “이번 봉사단에 참여하는 파라미타 청소년들이 현지 아이들을 보며 인간의 참된 행복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봉사활동 및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세계적 안목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어린이들을 위해 한복 등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자전거 30대도 증정한다. 아울러 우물지원은 약 80m 지하까지 파내어 건기 때도 식수가 공급되게 할 방침이다. 지역 대부분 우물이 평균 약 30m로 건기 때는 이마저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1년 365일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이다. 박익명 기자

월운 스님, 동국대 명예박사로

봉선사(주지 정수)는 7월 17일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등의 간청으로 월운 스님이 학위수여를 허락해 8월 19일 동국대 졸업식에서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역경사였던 윤해 스님은 은사로 출가한 월운 스님(사진)은 평생을 역경봉사에 매진해왔다. 윤해 스님의 뜻을 이어 37년간에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또 국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대작불사로 평가되고 있다. 스님은 1994년 4대 동국역경원장에 취임한 이후 후학양성에 매진해왔다. 2008년 불교학술원이 설립되며 당시 동국대 측의 일방적인 역경원장 해임 결정으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명예역경원장 추대 등이 이어졌으며 2009년 동방대학원대의 명예박사, 2014년 중앙승가대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가 이뤄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방불교대학 2015년도 입학식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2015학년도 입학식이 신입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0일 서대문구 봉원동 동방불교대학에서 거행됐다. 이날 입학식에는 원로회의 의장 덕화스님, 서울 북부교구총무원장 호명스님, 원로회의 사무처장 대은스님, 마산 세심사 주지 호정스님과 조준호 교수 등 교수진이 참석해 신입생들을 축하하고 장도를 기원했다. 이번 동방불교대학에는 불교학과에 27명의 신입생이 입학해 2년간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김주필 기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입학식



춘천 현지사(주지 대원)는 7월 11일 대전본원 영산불교대학에서 제6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영산불교대학 입학식에서는 760명이 입학했다. 이와 함께 현지사 제2본산 제주도에서는 70명의 학생이 입학했다. 불교대학장 덕산 스님은 “불자들의 신심과 정진을 연마시켜 우리나라 모범 불자단체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성철 스님 사상 널리 알려지길”

백련재단, 21일 고심정사서 선양 법어집 봉정법회

1976년 〈한국불교의 법맥〉을 시작으로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성철 대종사 사상 선양 법어집들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봉정법회가 열렸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7월 21일 부산 고심정사에서 ‘성철 스님 선양 법어집 봉정법회’를 개최했다. 성철 스님 문도회 스님들과 신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봉정법회에서 대종들은 많은 국민과 불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한국불교의 선지식(善知識) 성철 대종사의 가르침이 더욱 널리 퍼지기를 발원했다. 이 자리에서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법어집 발간



이사장 원택 스님이 부처님께 〈명추회효〉를 봉정하고 있는 모습.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법정 스님과 인연으로 법어집 발간을 시작했다고 밝힌 원택 스님은 “성철 큰스님의 가르침과 당부가 담겨 있는 법어집들은 그 자체로 하나하나가 소중한 법”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활동가 기반, 자정 실천운동 펼칠 터”

손상훈 신임 교단자정센터 원장, 21일 기자회견

지난 7월 9일 열린 교단자정센터 이사회서 선출된 신임 원장 및 정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교단자정센터(원장 손상훈, 이하 자정센터)는 7월 21일 서울 인사동에서 신임 교단자정센터 원장 및 정책위원장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신임 손상훈 원장(사진)과 조재현 정책위원장은 소감과 자정센터의 향후 방향성을 표명했다. 손상훈 원장은 교단자정센터 창립 이래 최초의 활동가 출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손 원장은 “정책위원들을 보강해 조계종책 연구를 통한 의제 도출에 집중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활동가 출신을 기반으로 자정 실천 프로그램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손 원장은 흥국사 명화 반환 문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손 원장은 “우선 봉선사에 보관 중인 흥국사 명화 간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문화재법 위반 은닉행위 저촉불문 여부를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가려낼 것”이라며 “문화재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흥국사 명화 반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했다. 이어 조재현 정책위원장은 “교단에 대한 객관적 문제의식을 해석해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공공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前 김종규 원장은 임기 만료에 따라 참여불교재단가연대 대표로서 교단자정센터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박익명 기자 pak502482@hyunbul.com

Advertisement for 'Onyeolbokdae' (온열복대) health product.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product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back pain and overall health. The text includes '건강백세' (Healthy 100 years),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Still do you endure cold and stiff back?), and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Infrared 'Heat' efficacy, mysterious gold mountain stone onyeolbokdae). It also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금강의료기' (Geumgang Medical Equipment).

Advertisement for 'Lumbini Digital Buddhist Sutra Player'. It features an image of the device and text describing its features and benefits. The text includes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Essential item for 20 million Buddhist children), '디지털불경 뉴롬비니' (Digital Buddhist Sutra Player), and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The recitation of Hyeodong's sutras, which has touched the hearts of Buddhist children, is now close to you). It also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금강의료기' (Geumgang Medical Equipment).